

전남도, '농식품 제조·가공지원' 공모

식품업체 매출 향상·일자리 창출 위해 마련

총사업비 21억 원 5개소 내외 선정 중점 지원

전라남도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활성화를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식품업체의 매출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올해 5개소 내외로 선정해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및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하며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한 법인 및 사업체로 출자금 1억 원 이상, 1년이 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다.

사업을 희망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소재지 시·군 농식품 유통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개소당 5억 원,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개소당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지원 받은 담양군 '조진순 가마솥식품'은 김치와 발효식품 생산 공장을 신축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 판매로 2016년 매출액 1억 원에서 2019년 3억 원까지 성장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구례군 '도올바이오토타'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생산설비를 증설, 친환경 유기농원료를 사용한 콘플레이크, 블랙 통곡물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해 2018년 76억 원에서 2019년 91억 원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도가 선정한 '전남스타기업'에 뽑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등 우수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김정환 기자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엔택트시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며 "식품업체 매출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간선도로망 대폭 확충

상무지구~침단산단 등 혼잡도로 개선

광주시는 올해 간선도로망을 대폭 확충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총 6건으로 혼잡도로 3건, 산단진입도로 2건, 연구개발특구 지원 1건이며, 신규사업은 총 2건으로 광역도로사업 1건과 산단진입도로사업 1건이다.

광역도로사업은 보상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올해 '광주하남~장성상계 광역도로' 1건을 신규 추진한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각자 구간 설계 착수해 노선확정에 들어간다.

광주 광산구 진곡, 하남산단 인근

에 위치한 장수교차로에서부터 입국동 황룡강 구간을 거쳐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양저수지 상무평화공원까지 15.4km 기존 2차로가 4차로로 확장되며 노선도 일부 조정된다.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올해 '상무지구~침단산단', '월전동~무진로', '북부순환도로', '용두~담양' 4건의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상무지구~침단산단' 사업은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유덕동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하남대로 구간과 교량 가설을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한창인 영산강대교 구간을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한다. '월전동~무진로' 사업은 공항앞 동송정지하차도의 철도관련 협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공항역 앞 지하차도 구조물 설치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북부순환도로' 사업은 올해 1공구 일곡교차로에서 한새봉을 거쳐 용두동 용대교까지 3.22km 구간의 보완설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연내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용두~담양' 사업은 보상과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올해 모두 확보함에 따라 잔여구간 확장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산단진입도로사업은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2건을 지속 추진한다.

광산구 평동3차산단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을 잇는 6.4km 구간을 시비와 국비 등 재원에 따라 분할해 추진

중이며 올 상반기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국비구간인 영산강 횡단교량~남구 석정동 2km구간은 올 하반기 우선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시비구간인 광산구 유계동 동곡식물원~영산강 1km구간은 국비구간 공사 추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신규사업인 '침단3지구 진입도로'는 작년 말 국토부의 신규산단 진입도로 타당성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비 453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국토부와 협의해 거쳐 올 하반기 설계에 들어간다.

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은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1건으로 북구 용두동의 기존 노후된 용두교를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사업이다.

기동취재본부

전남개발공사 청렴 루키단 발족

입사 4년차 미만 직원 28명 구성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는 19일 공사 10층 대강당에서 '청렴 루키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 루키단은 입사 4년차 미만 직원 28명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의 청렴 조

직문화의 정착,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 된다.

청렴 루키는 ▲청렴 캠페인 운영 ▲청렴 조직문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고객에 대한 친절한 문화 캠페인 홍보 ▲공익신고 제도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은 청렴 루키단에게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불친절도 부패다'라는 관점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 조직문화 정착 및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김철신 사장(가운데)이 청렴 루키단 구성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늬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우리천장 깐 등구, 여성간부 공무원 약진

광주 동구의 우리천장이 과격적으로 깨지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동구가 민선7기 출범 이후 여성국장을 임명하는 등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5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 비율은 22명(44%)으로, 민선6기 말(2018년 6월말) 12명(28%) 보다 16% 이상 대폭 향상됐다. 2013년 7월 이후 7년6개월 만에 올 상반기 승진인사를 통해 4급 여성국장을 배출했다.

5급 승진자를 비롯해 6급 중간 간부층에서도 주요보직을 여성들이 차지하는 등 여성공무원들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구, 2021년 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 공모

광주 서구가 이번달 29일까지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 및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취지는 주민 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021년에는 양동·농성권역, 화정1·2권역, 상무권역, 광천·동천권역, 치평권역, 금호1·2권역, 유덕권역, 풍암권역, 서창권역 등 권역별 1개소 총 11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화정1권역을 포함하여 유덕권역은 2021년까지, 금호2권역은 2022년까지 지원대상으로 지정되어 그 외에 8개권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만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20명 이상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갖춰진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이다.

남구, 불법 광고물 '신고·허가'로 합법화 유도

광주 남구는 관내 옥외 광고물 중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 수천여개를 합법적인 광고물로 전환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양성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광고물은 관련 법 기준에 따라 광고물의 크기 및 설치 장소 등은 적합하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존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뒤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이 된 것이다.

남구는 올 한해 해당 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신고 및 허가에 나설 경우 이행 강제금도 면제할 방침이며, 양성화 안내문을 받고서도 자진철거 및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북구, 생활SOC사업 착공 공공인프라 확충 본격화

광주 북구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사업을 본격화한다.

북구는 22일 14시부터 북구문화센터 및 생활SOC사업 통합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 개관한 북구문화센터 개관식과 북구가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 3곳의 착공식이 함께 진행된다.

당일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단체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하고 100여 명의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기념식과 공연 등을 관람한다.

북구문화센터는 연면적 2841㎡(지하1층, 지상 3층)에 공연장 377석, 도서관 180석, 오픈갤러리 등 문화·예술·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됐다.

광산구, 25일까지 '공연장 1일' 참여 예술인·단체 모집

광주 광산구가 공연기획을 발표하는 작품공회회 '공연장 1일' 행사를 다음달 4일 광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달 25일까지 참여 예술인과 단체를 모집한다. 공모에는 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을 비롯한 모든 공연예술 작품 기획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을 거쳐 선정된 10개 팀은 '공연장 1일'에서 공연기획 발표 기회를 갖는다. 광산구는 이날 발표하는 10명의 예술인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급여비	보험료	비율
240,833원	1.1배	240,833원
125,531원	1.7배	125,531원
79,147원	2.1배	79,147원
48,103원	2.7배	48,103원
26,697원	5.3배	26,697원

고소득층 ← →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홈페이지 1577-0000